

지공단) 등 24개의 입주 업체·기관이 선정되어 2005년 9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가격은 시범단지와 동일하게 평당 14만 9,000 원으로 책정되었다. 본단지 추가 분양은 2006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2)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사업은 2004년 4월 13일 개발사업자가 복측과 토지임차료 및 지장물 철거비 등으로 미화 1,600만달러를 지불하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23일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부지조성에 착수한 이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5년말 현재 9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 공사를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3) 내부 기반시설 공사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은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단지내시설(도로, 상·하수도, 조경, 특수시설물) 등 내부 기반시설과 외부 기반시설인 전력·통신으로 정부는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국내 공단 수준에 맞춰 지원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06년말까지는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내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외부 기반시설인 전력·통신 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장기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용수시설은 공단 북쪽 약 17km 떨어진 월고저수지에서 하루 6만톤(개성시 공급분 1만 5,000톤 포함)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측이 시공하는 댐축조와 도배수관로는 2005년 11월에, 남한측이 시공하는 정배수장은 12월 착공하였으며, 이들 시설은 모두 2006년말까지 모

두 완료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폐수처리시설은 1단계지역 8천평 부지에 하루 3만톤 처리규모로 설치되며, 그중 하루 처리규모 1만 5,000톤의 1단계사업은 2005년 4월 착공하여 2005년말 현재 21%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1단계지역내 1만 5,000평 부지에 매립시설 20만 4,000톤, 소각시설 하루 40톤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북한측과의 설치 위치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졌으나 1단계사업(매립 시설 6만 1,000톤)을 2005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06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단지내 시설중 도로, 상·하수도는 2004년 8월 착공하여 2005년말 현재 38%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교량 등 특수시설물은 2005년 10월에, 근린공원·체육공원 등 조경시설은 2005년 12월 착공하여 2006년말까지는 모든 단지내시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시범단지 및 1차단지 5만평은 본단지 기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하수 개발, 임시폐수처리장 설치, 폐기물 북측 위탁처리, 진입도로 우선 건설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4) 전력·통신 공급

2004년 12월 남북간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2005년 1월 배전시설(1만 5,000kW) 공사에 착수하여 2005년 3월 시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을 개시하였다. 금번 전력 공급은 1948년 5월 14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단전 조치 이후 57년 만에 끊어진 전기가 휴전선을 넘어 다시 남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본단지에 대한 송변전시설(10만kW) 공사도 추진하여 2005년 4월 송전경과지 노선을 확정하고, 2005년 7월 관계부처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2006년초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본단지 가동에 맞춰 2006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통신공급은 2004년 12월 KT와 북한측의 조선체신회사간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후 양측은 요금, 정산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요금은 1분당 미화 40센트로 종전 보다 2달러 30센트 인하한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동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하여 2005년 3월 24일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KT에서는 공단과 군사분계선 인근 통신망 공사를 추진하여 2005년 7월 18일 남북간 민간차원의 최초 광케이블 접속을 하였으며, 2005년 11월 17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 의한 재수출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11~12월중 공단내 KT 통신실에 교환, 전송장비 및 개성전화국에 전송장비를 설치하여 12월 28일 228회선을 개통하였다. 개성공단 통신망 개통은 기존의 금강산 관광통신과 같은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과 달리 남북간을 직접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상용통신망을 분단이후 처음 이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개성공단 통신망 개통은 저렴한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북 IT협력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미국의 EAR 등 국제규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남북 IT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의 통신환경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전용회선 등의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안정적인 사업 추진기반 구축

가. 법·제도 정비 | 북한은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 이후 2005년 말까지 총 14개의 하위 규정을 제정하였다. 2005

년에는 「세금규정」, 「노동규정」, 「회계검증규정」등을 제정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2005년말까지 부동산 등록준칙 등 공단 관리와 운영을 위한 30여개의 사업준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남북 당국은 2002년 12월 8일 체결한 「개성공업지구 통관·통신·검역 합의서」와 2004년 1월 29일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2005년 8월 1일 발효시켰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 및 해석·적용, 개성공단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처리방향, 법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 설치한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는 관·검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2005년에는 총11회의 자문회의를 열어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세부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자문, 개성공단 관련 우리측 합의서(안) 및 북한측과의 협상대책에 대한 자문, 개성공단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의 처리방향에 대한 자문을 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개성공단 법제구축은 입주기업의 투자안정성 보장을 위해 기업친화적인 법제도 정비에 초점을 두어 왔다. 향후에는 이러한 기업경영관련 법제의 확충과 함께 남북주민의 공동생활에 따라 발생가능한 법적문제를 규율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교류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감과 동시에 남북한 법제통합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법제구축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나. 지원 체계 강화

(1) 개성공단 관리체계

2004년 10월 20일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갖고 출범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2005년 12월말 현재 위원장 1명, 상근이사 1명, 기획

조정부, 사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협력부, 서울사무소 등의 부서가 있으며, 총4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협력부는 5명의 북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2005년 11월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5년 시범단지의 생산가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발급, 환경보호, 소방대책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해 왔다. 관리위원회 사무실은 개성공단 시범단지 인근에 부속건물을 포함 1,150평 규모의 임시건물로 건축되었으며, 1단계 100만평 개발이 완료되는 2007년경에는 개성공단 중심부에 본 건물을 건축, 완전한 면모를 갖추어 예정이다.

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2004년 11월 설립된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2005년에도 지원단과 관리위원회간의 제반 행정적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관리위원회의 사업수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였다.

2004년 10월 통일부의 조직으로 출범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통일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등 8개 정부부처 인원들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개성공단 개발사업 지원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며, 노무관리·통행·통관절차 등 각종 제도수립, 입주기업 지원, 투자유치, 기반시설 건설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우리은행 개성지점



(2) 공단지원시설 설치·운영

개성공단에는 입주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은행, 의료시설, 식당, 편의점 등이 입주해 있다. 2004년 12월 1일 관리위원회 임시청사 내에 지점을 개점한 우리은행 개성지점은 2005년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하여 송금 및 환전, 예금 및 대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남한측 인원 2명, 북한측 인원 3명 총 5명이 근무중이다.

의료시설로는 사단법인 YMCA의 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가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2005년 1월 10일 개성병원을 개설하였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이 상주하여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말 현재 남측 인원 6,800여명, 북측 인원 1,200여명 등 총 8,000여명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 식당

과 편의점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고, 각종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2005년 2월 소방대를 창설하여 소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대는 우리측 인원 2명과 북측 소방대원 11명으로 구성되어 24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0t급 물탱크 소방차 1대, 5t급 화학펌프차 1대와 소방복, 공기호흡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화재예방 및 화재진화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위원회는 1단계 본단지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할 것을 대비하여 직업훈련센터, 종합지원센터 등 공공지원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준비에 착수하였다. 종합지원센터는 연건평 9천평 규모로의 건립될 예정으로 개성공단 투자유치 및 경영지원, 전시·판매·컨벤션 및 홍보, 각종 편의시설, 이산가족면회소, 사회문화교류센터 등 복합적인 공공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0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9년경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 사업지원체계 정립·운영

개성공단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함에 따라 통일부는 개성공단 관련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전문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방위적 정책공동체를 형성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포럼,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개성공단사업협의회, 입주기업대표자간담회 등이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공동체이다.

우선 개성공단포럼은 개성공단 개발·운영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개성공단 사업관련 「총괄」, 「인프라」, 「분양전략」, 「인력·문화」 등 4개 하위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개발사업자, 지원기관 등 33명이 참여하고 있다.

2005년 한해 동안 전체회의 4회, 공개세미나 1회 등 총15회의 회의 및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통일부에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유관기관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통일부, 산자부, 재경부, 중기청 등 관련 정부기관 4개 부처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산업은행, 산업단지관리공단, KOTRA, 대한상의 등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12개 민간 유관기관 등 총16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에는 총3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수요조사 결과 나타난 공정전문가 지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 지원, 연구개발 전문가 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

개성공단사업협의회는 관리위원회와 지원단, 그리고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개성공단 사업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현안을 협의·해결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2005년도에는 총1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현안을 협의·해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입주기업대표자 간담회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시범단지 입주기업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채널이다. 입주기업대표자 간담회는 입주기업들이 공장건축, 제품생산 등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정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 지원대책 추진

(1) 노무관리 지원

(가) 인력공급 및 채용

2005년 12월말 기준 개성공단 내에 근무하는 북한측 근로자는 6,011명으로 남한측 근로자 507명을 포함한 전체 근무인원은 6,518명이다.

(단위 : 명)

합계	소계	리빙	신원	SJ	삼덕	문창	대화	로만손	호산	부천	태성	재영	제시콤	티에피
	4,211	376	330	143	1,056	567	152	552	40	350	454	116	70	5
6,011	소계	관리위원회			지원기관		한국토지공사 · 현대아산(건축 · 토목 · 정비 포함)							
	1,800	54			20		1,726							

입주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지도총국)에 요청하고 지도총국은 개성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기업은 지도총국에 근로자 1인의 알선에 대하여 노력알선료로 미화 17달러를 지급한다.

(나) 직무교육

입주기업이 지도총국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으면 통상 2~3개월 간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북측 근로자들은 목표의식을 갖고 근무에 임하고 학습능력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은 특히 수작업을 요하는 봉제직종에서 두드러져 일부 기업은 남한의 80~85%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용 경험이 없는 기계 직종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사전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 기업별 공통 요구사항인 직장예절, 생산관리, 품질관리, 산업안전 등 7개 과목의 기초직무교육 편성과 교과 편성, 교재준비,

개성공단 내의
남북의 근로자들



강사선정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시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북한측과 협의중에 있다. 2005년 10월에는 일부 북한측 사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기초교육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직업교육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직업훈련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직업훈련센터는 부지 7,000평, 연건평 3,000평의 3층 건물로서 연간 2~3만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5년에 부지매입, 설계착수를 했고, 2007년 3월 완공 예정이다.

(다) 근로관계 기준정립 및 제도 정착 지원

북한측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준칙(안)을 마련하여 2005년 7월 북한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관리위원회와 북한측이 협의하여 만든 노력알선계약서(안) 및 노력채용계약서(안)에 기 전달한 노동준칙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으며 이 노력알선계약서 및 노력채용계약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노력알선 및 채용과 관련한 표준적인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내 북한 근로자들은 통근버스(관리위원회 18대, 현대아산 5대, 지에스 1대 운영) 혹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하고,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퇴근을 하고 있으며 주 48시간 내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다. 물량 증가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북측 직장장과 협의하여 연장·휴일근무 등을 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은 연장·휴일근무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로서 연장·휴일 근무시에는 기업이 북측에 가급금을 지급한다.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규정에서 정한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에 관한 세부시행방안을 상호협의 중에 있다.

(라)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2005년 12월말 현재까지 개성공단 산재사건은 전체 20건으로 남측 7건, 북측 13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북한 근로자들의 사고는 기계 조작 실수, 경험미숙 및 호기심에 의한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별로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는 노동안전세칙을 마련하여 북한측에 전달, 협의 중에 있다.

(2) 전략물자 반출 문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설비·자재 반출과 관련,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기업이 최종사용, 우리측에 의한 공단관리), 다자간 국제협약인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협약(WA) 등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이행,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국내기업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05년에도 한국무역협회 산하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와 협력하여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 통제체제를 운영하고,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도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컴퓨터 등 주요 반출물자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비치, 관리실태 보고체계 운영 등 다양한 사후통제·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정부는 미국과 EAR상의 수출통제품목 반출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EAR 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5년 11월 KT는 개성공단 전화 개설을 위한 통신장비에 대해 EAR 규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음으로써 본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전략물자 반출에 대해서도 미국측의 긍정적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지금까지 형성된 한·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인식을 공유하고 개성공단 물자 반출과 관련, 양국 실무자간 수차례의 실무협의회 개최, 국제회의 참석, 통일부장관의 방미 등을 통해 한미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3) 원산지 및 판로확보 문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체제가 완비될 경우 생산 제품의 판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수출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2004년 11월 타결되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선례로 활용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한-싱가포르 선례를 바탕으로 2005년 7월에 타결된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FTA 및 2005년 12월 각국 정상들이 기본협정에 서명한 한-ASEAN FTA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본단지 조성이후 제품생산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한-미, 한-일 등 20여개의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특혜관세를 받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해외 판로 확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각국의 원산지 제도를 파악하고 국가별로 북한산 제품에 대한 진입규제, 쿼타규제, 관세율, 일반특혜관세(GSP)세율 등을 조사하여 입주기업 및 입주 희망기업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혁신박람회’, ‘기술혁신대전’ 등을 통하여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중국, 유럽 등에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홍보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4) 금융지원

개성공단 시범사업은 2005년도에 11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보다 높은 물류비 및 공장 건축비 등은 입주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금사정이 열악한 입주기업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험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키로 하였다.

2004년 남북협력기금대출 승인액이 259억원이고 집행액은 181억원이다. 2005년에는 기금대출승인액은 184억원이고, 집행액은 203억

원이다. 2005년까지 13개 입주기업에 대해 총 443억원의 기금대출승인이 이루어졌고 이중 384억원이 집행되어 입주기업의 투자재원 마련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편 2005년 9월 분양이 완료된 본단지 5만평 입주예정 기업에 대하여도 2006년부터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5) 남북간 통행절차 간소화

정부는 개성공단이 국제 경쟁력을 갖는 공단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통행절차 간소화가 선결과제라고 보고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5년에는 무선인식(RFID)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통행·통관 및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지원받아 2005년 RFID 선도사업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방문증명서와 관리위원회의 출입증을 하나의 RFID전자증명서로 일원화하고, 통일부의 차량운행승인서와 관세청의 통행차량증명서 및 관리위원회의 차량통행증을 하나의 RFID카드로 대체하여 인원 출입 및 차량통관 심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략물자 및 미국의 EAR 승인대상 품목 등 주요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시 물품관리 태그를 부착토록 하여 반출입 및 사후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들어 1단계 시범단지 입주와 공장 생산가동이 확대되고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원과 차량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통행량의 증가에 따라 남북관리구역의 통행방법도 종전에는 오전 출경, 오후 입경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오전과 오후 구분없이 통행이 가능해지고 입출경을 합하여 1일 통행 횟수도 17회내외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입신고 생략, 차량

승인유효기간 연장 및 승인처리기간 단축, 원산지 신고제도 개선, 반
입물품의 선별검사 시행 등 많은 제도 개선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북한측은 남북관리구역 통과시 군부가 시행하던 출입인원에 대한
검색을 폐지함으로써 통행불편이 크게 개선되었다. 관리위원회는 북
측의 출입관리 시설의 확충을 위해 개성공단 진입 도로변에 출입관리
시설을 신축하여 12월에 완공하였다. 검사 장비 등이 완전히 구비되
면 수작업에 의존하던 출입심사 및 통관검사가 현대적 전자식 검사
장비에 의해 보다 신속히 처리될 것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본단지 본격
입주 및 개성관광 등 통행수요에 대비하여 남북군사당국간 협의중에
있는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조기에 체결하여 연
중무휴·자유통행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육·해·공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

1. 육로

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 2005년에 이르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도로는 이미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있으며, 철도는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교통망을 남겨둔 상태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합의된 남북경협 의 상징적 사업이다.

2003년 10월 경의선이 연결되고, 2004년 11월 동해선 마지막 연결 공사가 완료되었다. 2005년 들어서 차량과 인원의 일일평균 이용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철도의 경우, 우리측 구간 경의선은 2002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동해선은 2005년 본선 궤도 부설 등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 시설공사가 완료되었다. 북측 구간도 경의선·동해선 모두 궤도부설을 완료하고 역사공사 및 각종 운영설비 설치공사 등 마무리 공사중이다.

한편, 남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및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에서 2005년 10월중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을 개최하고, 2005년 연내에 철도를 개통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8일부터 25일에 남북한의 토목·건축·신호·통신·전력 등 분야별 철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남북 연결구간에 대한 공사 실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열차·차량운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합의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차시험운행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예정되었던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 철도개통이 모두 2006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열차·차량 운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2003년 1월과 2004년 8월에 각각 가서명한 「남북사이의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2005년 8월에 발효시킴으로써 남북간에 정상적인 열차·차량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북간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남북간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남북간 평화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남북 육로출입절차 개선 | 2005년 한해가 남북교역액 1조원, 남북왕래 인원 9만명, 금강산 관광객 30만명 시대로 상징되듯, 경의선·동해선 도로가 연결되면서 수많은 인원과 물자들이 남북을 오가게 되었다.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관광,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자재·장비수송이 대표적 사례이며, 그 외에도 각종 남북회담,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 교류협력, 인도적 사업 등을 위해 인원과 차량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통해 남북을 왕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남북간 육로통행 출입업무를 관할하는 임시 출입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남북출입사무소를 신설하여 남북출입업무를 제도화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를 통한 남북사이의 인원 왕래, 물자의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시 세관검사(Customs Inspection), 출입심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등 고유한 출입심사(CIQ) 업무와 함께 남북 철도·도로의 운영, 남북차량 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남북 출입에 따른 긴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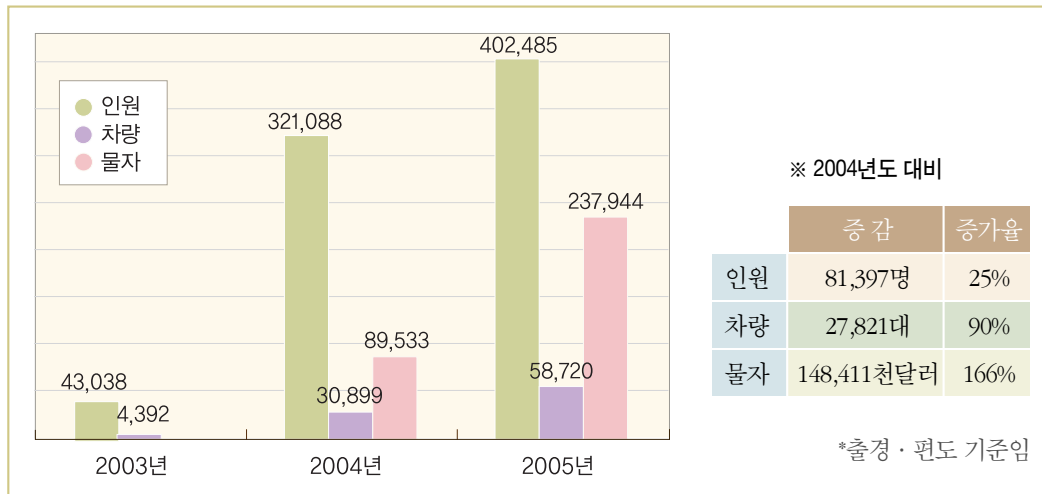
황의 처리, 남북출입계획 작성·조정 등의 남북 출입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11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개통 이후 남북간 육로를 이용한 인원 및 차량 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 절감 및 남북출입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방북증명서 현장 재발급, 수시방북자 신고·연장 확인, 경의선 지역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통행절차 간소화 등 남북 육로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남북출입계획 전산시스템 구축('05. 5. 16), 관세청과의 자동차운행관련 민원처리시스템 통합('05. 7. 4),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연계('05. 12월) 등 출·입경 자동관리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육로출입운영시스템과 관계부처와의 육로출입시스템 통합하는 등 국민 입장에서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 남북 육로출입 현황 | 2005년 육로출입 인원은 금강산관광객 29만8,247명을 포함하여 40만2,485명으로 2004년도 32만1,088명보다 약 25%가 증가하였다. 육로방북은 금강산관광 74.3%, 개성공단사업 13.1%, 모래반입, 식량차관 등 경협사업이 8.9%, 철도·도로연결사업 1.6% 순으로 이루어졌다.

경의선 도로를 통한 육로방북은 개성공단사업, 대북지원 및 경협협회의 등 개성지역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2004년 대비 176%가 증가한 6만6,772명이었으며, 동해선은 금강산관광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33만5,713명이 출입하였다. 2005년도 육로출입 차량은 경의선 3만8,720대, 동해선 1만9,852대 등 총 5만8,720대로 2004년도 3만899대보다 약 92%가 증가하였다. 차량은 개성공단사업 35%, 모래반입, 식량차관 등 경협사업 34.9%, 금강산관광 19%, 철도·도로연결사업 6.5% 순의 분포를 나타낸다.

남북 육로출입 현황



라. 남북출입시설 신축 | 본격적인 남북간 육로통행시대에 대비하여 경의선·동해선 남북출입시설 신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남북출입시설 건설은 남북간 물류 확대 및 수송비 절감과 더불어 한반도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인 효과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남북출입시설 신축사업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총사업비 2,803억원(경의선 1,587억원, 동해선 1,216억원)을 의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남북출입시설은 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고객편의 중심의 공간배치 및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2004년 9월 23일 경의선 지역 본출입시설 건물 착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라산 지역에 약 13만평, 동해선 저진 지역에 약 12만평의 철도·도로 출입시설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도로 본출입시설은 2005년 12월 완공하였고 철도 출입시설은 2006년 4월 완공 예정이며, 기타 부대시설 및 공용야드는 200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해당 공사를 추진 중이다.

2. 해로 및 항공 남북간 안정적 해상운송체계를 마련하고 해운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5월에 채택된 「남북 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2005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와 북한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었으며 지금까지 제3국 국적선이 운항하던 남북간 항로에 남북한의 국적선이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은 해운합의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2005년 8월에는 남북해사당국간에 전화 및 모사전송 등 2회선의 유선통신망을 가설하였으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를 상호 교환하였다. 또한, 2005년 9월에는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로서 남북해운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5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4,497회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은 2,228회로 전년대비 134%가 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2,269회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다. 이는 대부분 인천-해주간 모래운반선의 운항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북한선박은 45회 남북간 항로를 운항하였으며 이중 39회는 북한 항구에서 북한항구로의 운항이다.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교역물자 등의 운송을 위해 인천~남포, 부산~나진간의 2개 항로에 2척의 정기선이 각각 주 1회 운항중이다.

한편,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최초로 서해상의 남북 직항로로 인천-평양 사이를 운항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간 항공기 운항횟수는 편도기준 2000년 43회, 2001년 19회, 2002년 67회, 2003년 111회, 2004년 28회 운항하였으며 2005년에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8회 운항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 운항은 103회, 북한에서 남한으로 운항은 105회이다.

제6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2005년은 6·15, 8·15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비롯하여 체육·종교·문화예술·학술·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어 상호접촉과 왕래의 확산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한 해였다. 2005년 사회문화교류를 위해 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2004년 3,557명의 3배인 10,77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건수도 47건으로 전년도인 1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9월과 10월에는 7,300여명의 남한주민이 평양문화유적답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한편 광복60주년을 맞이하여 북관대첩비 반환사업, 안중근의사유해발굴·봉환사업 등 남북간에 민족사적 의미가 큰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남북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듯 민간단체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화교류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이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남북공동행사

가. 6·15통일대축전 | 2005년은 6·15공동선언 5주년,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시민사회단체는 6·15통일대축전 행사를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2004년 하반기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해외 3자는 3월 3일에서 5일까지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6·15공동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백낙청(남한)·안경호(북한)·문동환·곽동의(해외)씨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통일대축전 개막식



6·15공동위원회는 6·15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6·15통일대축전」(6월 14일~17일)을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당국대표단 40명과 백낙청 6·15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간대표단 295명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여 평양을 방문하였다. 특히 이 행사에는 남북당국이 처음으로 참여하여 당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였다. 6·15공동위원회는 6월 15일 개최된 민족통일대회에서 '6·15 공동선언발표 기념일' 제정과 동족 사이의 공조 강화, 핵전쟁의 위험 제거, 6·15 공동위원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족통일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밖의 주요 행사로 개·폐막식, 노동·농민·교육·종교·여성·청년학생 등 부문별 상봉행사, 체육유희경기 등을 개최하였다. 문화예술공연으로는 남한측은 가극 '금강'을 공연하였으며, 북한측은 '춘향전'을 공연하였다.

한편, 행사기간 중 남한 정동영 단장은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방문하여 6월 17일 2시간 30분간 단독 면담하였다. 정동영 단장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6자회담 복귀 용의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반 실질적 조치들도 협의하였다. 남북관계가 10개월여만에 정상화되고, 북핵문제 해결이 중대 국면에 놓여있는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과의 6·17 면담은 남북 상호 신뢰증진과 남북관계 도약의 발판 마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된 의미있는 자리였다

나. 8.15민족대축전 | 「6·15통일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한 6·15공동위원회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8·15민족대축전」(8월 14일~17일)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도 「6·15통일대축전」 행사와 마찬가지로 남·북·해외의 민간뿐만 아니라 남북당국도 참여하였다. 북한은 김기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당국대표 17명, 안경호 6·15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민간대표 100명, 남녀축구선수단 65명이 참여하였다.

8월 15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8·15민족대회에서 남·북·해외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

참가자들은 “온 겨레의 힘과 뜻을 모아 6·15선언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사의 대장정을 중단 없이 이어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통일과 분단시대의 낡은 제도와 관념 개혁, 전쟁 위협과 군사적 대결 종식·항구적 평화실현,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향한 다방면적인 협력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서대문형무소 참관, 개·폐막식, 부문별 상봉행사, 문화예술공연 관람(무애지무)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6·15공동위원회는 「8·15 민족대축전」 개·폐막식에 8·15남북통일축구경기를 개최하는 등 보다 많은 일반시민들을 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민족전체의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노력하였다.

행사기간 중 북한 대표단은 분단이후 최초로 국립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의미있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 대표단은 입원 치료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문안,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의사를 전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6·15 5주년을 계기로 정상화된 남북관계 흐름은 8·15 광복 60주년 남북공동행사 이후 한 단계 심화·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 교류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는 교류사업 추진 중에 다양한 남북 지방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천시 대표단은 평양을 방문(5.30~6.2)하여 인천시의 대북교류사업을 협의하였으며, 인천에서 개최된 제16회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9.1~4)에 북한선수단 20여명과 응원단 124명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특히 응원단은 경기장 응원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을 펼쳐 인천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원도는 금강산 병해충 방제사업, 연어 부화장 지원사업 등 기존의 협력사업을 심화·발전시켜 추진하는 한편, 인적왕래 및 문화분야

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금강산에서 남북강원도민속문화축전(9. 27~29)을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는 북한 민족화해협의 회측과 공동으로 평양시 용성구역에 3ha 규모의 시범농장을 건설하였다. 경기도가 영농기술과 농기구를 제공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합친 시범농장은 14.8톤의 쌀을 수확하는 등 남북간 기술협력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상남도는 평양시 강남군과의 농업협력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 하여 2006년부터는 농자재 지원, 농업기술 지원 등 본격적인 대북교 류사업에 나설 예정이며, 전라북도는 황남 신천군 농기계지원 및 농 기계 수리공장 건설 지원사업을 2004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 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여 왔던 감귤 등 농산물 보내기 사업을 2005년에도 실시하여 감귤 3,000톤, 당근 7,000톤 등 제주산 농산물 10,000톤을 북한주민에게 전달하였다.

그 밖에 서울시는 경평축구 부활사업,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북한영화 상영, 울산시는 전국체전시 북한 지역선수단 참가, 경상북 도는 농업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한 편, 기초자치단체중에는 충북 제천시가 북고성군 과수원 조성사업을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현황

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내용	진행상황
서울시	○ 서울-평양 축구대회	실무협의중
부산시	○ 부산국제영화제('05.10) 북측 참가	성사 안됨
인천시	○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05.9) 북측 참가	완료
울산시	○ 전국체전('05.10) 북측 지역대표단 참가	성사 안됨
강원도	○ 금강산 병해충 방제작업	사업시행중
	○ 원산농업기술소 개보수작업	사업시행중
	○ 연어 부화장 사업	사업시행중
	○ 남북강원도민속문화축전('05.9)	완료
경기도	○ 남북합작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	완료
전라북도	○ 황남 신천군 농기계지원 및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 지원사업	사업시행중
경상남도	○ 평양시 강남군과의 농업협력사업	사업시행중
경상북도	○ 농업협력사업	성사 안됨
제주도	○ 감귤보내기 및 제주도민 북한방문사업	사업시행중
제천시	○ 북고성군 파수원 조성사업	사업시행중
옥천군	○ 묘목지원 사업	완료
포항시	○ 동해안 연안시와의 교류	성사 안됨
경주시	○ 세계역사도시회의('05.10) 개성시 참여	성사 안됨
청주시	○ 직지심경 관련 학술 및 문화교류	실무협의중

3. 분야별 교류

가. 체육교류 | 2005년에는 남북 체육교류가 축구, 권투, 육상, 마라톤, 골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북한 선수단이 남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축구대회, 8·15통일축구대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활발한 남북한 체육교류가 이루어진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독일월드컵 동반 진출이 기대되던 축구는 북한의 탈락으로 아쉬움을 남겼으나 지방 3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된 동아시아 축구대회(7.29~8.7)에 북한의 남녀팀이 출전하고 이어서 8·15 남북공동행사 기간 중에 개최된 남북 통일축구대회에 또한 남녀팀이 동반 참가하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도 했다.

2004년 10월 중국 심양대회부터 시작된 남북간의 권투교류협력은 한국권투위원회의 주관으로 3월(중국 심양), 6월(평양 1차), 10월(평양 2차) 대회가 연이어 개최됨으로써 매분기마다 정례화되고 있다. 특히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평양대회에는 각각 1만이 넘는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미국 선수가 참가하여 최초로 미국기가 게양되었고 한국권투위원회의 지원과 경기주선에 힘입어 북한의 여자선수 3명이 세계여자권투평의회(WBCF) 챔피언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8월말에는 평양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가 개최되었고 분단 이래 최초로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공동 마라톤대회는 남북선수가 함께 달리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되었다. 9월 8일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참가시, 남북 올림픽위원장간의 접촉에서 2006 도하아시아경기대회와 2008 북경올림픽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남북 공동입장이 이루어진 동아시아대회(10. 29~11. 6, 마카오) 기간 중에는 남북대표단간 단일팀 실무접촉이 이루어져 차기회담 개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2월 초 개성에서 남북단일팀 체육회담을 개최하였다.

나. 종교교류 | 2005년의 남북종교교류는 지난 6·15이후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해로 평가된다. 불교계교류는 천태종이 지난 2003년 8월 북한 영통사복원위원회와 개성 영통사 복원을 남북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 한후, 2년여에 걸쳐 복원에 필요한 기와, 단청안료 등 자재를 20여차례에 걸쳐 지원을 하면서 300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방북, 남북간 인적교류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5년 10월 31일에는 영통사 낙성식 및 천태학술회의를 남북의 불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여 남북이 협력하여 종교시설을 건립한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조계종에서도 2004년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신계사 2단계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4년 대웅전 낙성식에 이어, 만세루, 요사채, 산신각, 3층석탑 등을 복원하였다. 신계사 복원사업은 2007년까지 12개동의 사찰을 복원할 계획이다. 한일불교복지협회에서는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방치된 임진왜란시 의병장 정문부 장군의 승전기록이 담긴 북관대첩비 반환사업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함께 추진, 2005년 10월 20일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북한측과 합의한 대로 2006년에 비의 원소재지인 함북 길주에 복원할 계획이다.

기독교 교류는 장로교 측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평양 대동강 구역에 온실과 관리사무소 건축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고 관리동 2층에 평양제일교회를 설립, 지역 교인들의 예배처소로 활용토록 하였다. 동북아복지선교회에서는 평양 봉수빵공장에 냉동설비를 지원·설치토록 하여 북한 교인들에게 제공될 빵 생산량을 늘려 식량지원을 통한 대북선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민족남북한선교회에서는 봉수농장에 왜성 사과과수원을 조성해 주기위해 사과묘목, 지주, 울타리시설 자재 등을 지원하면서 남북선교협력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장 통합 남선교회원으로 구성된 (사)기쁜소식에서는 낙후된 평양 봉수교회를 전면적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합의, 소요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말 준공예배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기독교 선교단체인 조국통일기도동지회에서는 2005년 10월 평양 칠골교회에서 남북의 교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기도회를 개최하였다. 평양에서의 남북기독교인이 대규모 기도회를 가진 것은 처음으로 기독교 교류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감리교 서부연회에서는 2001년 이래 추진해온 평양신학원 운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기적인 방북 등으로 남북기독교인의 인적교류를 확대시키면서 남북기독교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장로회에서는 2005년 5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우리측 200여명과 북측 10여명이 참석한 남북공동기도회와 성가제를 개최하였다. 천주교, 원불교 및 기타 종단에서도 대북 인도적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각 종단차원의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 문화예술교류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 및 북측 위원회는 공동으로 「고구려유물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 북측 소장 유물에 대해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북한소재 고구려유물 전시는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남북간 문화교류 아이টেम्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민족문학작가회의는 2005년 7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를 평양·백두산·묘향산 등지에서 개최하였다. 분단 이후 남북 문학인들의 첫 만남이었던 「민족작가대회」에는 남측 113명, 북측 100여명의 문인들이 참석하였으며, 6·15 민족문학인협회 결성 및 6·15통일문학상 제정, 남북공동 문학지 발간 등을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에는 평양방문 공연과 관련한 남북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6·15통일대축전」 문화행사로 가극 「금강」 평양공연과 가수 조용필 평양공연(8월 23일) 및 뉴서울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아, 고구려 고구려-광개토호태왕」 평양공연(9월 7일)이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평양에서 개최된 「제24회 평양 윤이상음악제」(10월 25일~29일)에 우리측 관계자가 참가하는 교류도 진행되어 2004년도에 부진했던 공연분야 남북교류가 원활히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초로 북한의 무용수가 남한의 모델과 함께 TV광고 모델로 출연하여 대중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존에 남북교류가 추진되었던 분야와 달

리 새로운 형태의 교류사업이 성사되는 성과가 있었다.

라. **학술교류** | 2005년도 남북간 학술 교류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 고구려 문화유적 발굴·보존 관련 학술회의가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을 규탄하는 전시회 등도 의미있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학술용어집 공동개발사업 등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학술협력사업도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었다.

2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남·북·러 학자들이 3국 공동학술회의를 개최, 그간의 고구려·발해역사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데 이어 7월에는 고구려 유적 평양공동답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북한은 을사조약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 군국주의를 규탄하는 사진전시회를 2005년 11월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최하고 강점기 일본에 의한 우리민족 수탈사를 폭로하였다.

한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양측은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하였다. 9월 7일 1차 실무접촉에서는 안중근의사 유해위치가 확정된 이후 각기 필요한 수의 인원으로 발굴단을 구성하고 유해위치 관련자료의 조사 및 교환 등 유해위치 확인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 여순에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당국 차원의 유해발굴 및 봉환사업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기념사업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남북 양측은 9월 14일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사업에 대한 남북합의서를 판문점을 통해 교환하였다. 11월 20일 2차 실무접촉에서는 안중근의사 유해위치에 대한 추가자료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면서 필요시 현지답사를 통해 안중근의사 순국기념일인 2006년 3월 26일을 계기로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 출판·언론교류 | 남북한 출판교류는 남북한 공동편찬, 저작권 교류 및 북한 저작물의 국내 출판, 남북 문인들의 만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북한 과학백과사전 출판사와 공동편찬한 『조선헌토대백과』 20권을 2005년 4월 완간하였다. 『조선헌토대백과』는 북한의 자연·인문·지리정보를 기초행정 단위별로 집대성, 북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통일맞이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05년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남북은 7월 평양, 8월 서울, 11월 개성에서 편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사전편찬요강을 합의하였으며, 「8·15민족대축전」시 백범기념관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3월 북한으로부터 북한 도서 3종과 노래 2종의 저작권 침해 보상 합의와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고 관련 활동을 진행하여 남한에서 출판된 월북작가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궽정』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12월에는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 대리업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온 소설 및 동화 47편이 국내 출판사를 통해 출판될 예정이다.

도서출판 보리는 북한 사회과학원 학자들이 우리 고전을 국역한 『조선고전문학선집』을 『겨레고전문학선집』으로 편집하여 출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비롯하여 총 11권이 출간되었다. 예맥출판사는 북한 전통 건축물 조사·실측 보고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7월부터 9월에는 (사)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및 (사)한국유헌문화연구원과 함께 덕수궁 석조전에서 제1회 남북전통공예교류전을 개최하였다.

남북한 언론교류는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교류사업 및 지상파 방

송사별 방북취재 등이 진행되었다. 방송위원회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중계 지원에 이어 2005년 7월에서 8월에 개최된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도 전 경기장면을 북한에 중계, 앞으로도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중계 지원사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2005년 9월에는 방송위원회가 주관한 제2회 남북 방송인 토론회가 금강산에서 개최되어, 남북 방송계의 회합을 정례화하였다. 11월 역시 금강산에서 열린 방송영상물 소개모임에서 남한 방송사들은 북한 영상물 114편을 구매하였고, 북한은 남한 방송사들의 영상물 22편을 구매하였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북한에 방송중계차를 제공하는 등 방송기자재 지원 및 방송기술교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KBS는 역사극 「사육신」주문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사육신」은 2006년 1월 기준으로 50% 가량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KBS는 「사육신」제작과 관련하여 북한에 방송촬영 장비를 제공하고 촬영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MBC는 2005년 2월 개성공업지구 현황, 개성 시내 설맞이 모습, 개성지구 역사유적 등을 취재하여 뉴스데스크 및 PD수첩에서 방영하였다. SBS는 2005년 8월 23일 평양 유경정주영체육관에서 평양 주민 7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광복 60년 특집 조용필 평양 2005」공연을 개최하였고, 이는 남한에도 생중계되었다. 그 밖에 월간 『민족21』은 통일신보 및 조선신보의 기사를 반입하여 게재하였고 (주)판도라TV는 북한 뉴스, 음악영상물 등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